

연대와 우정... 영화로 떠나는 스웨덴 여행

광주극장 11월 6~12일
제5회 스웨덴영화제

‘말괄량이 삐삐’로 유명한
린드그렌 ‘아스트리드’ 등
영화·다큐 등 무료 상영
6일 감독·배우 관객들 만남도

‘영화로 떠나는 스웨덴 여행.’

2012년 서울 등에서 첫 행사를 치른 후 5회째를 맞이한 스웨덴영화제에 관객들을 찾아온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스웨덴 대사관과 광주극장이 처음으로 행사를 진행했고, 올해 영화제는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 부산 영화의 전당과 함께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무료 관람.

올해 스웨덴영화제의 테마는 ‘연대와 우정-마음을 열다’. 전 세계적으로 세대간, 인종간, 계층간의 갈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동시에 연대와 우정,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는 기대와 희망을 담아낸 파스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상영작 라인업이 기대감을 높이며 다큐멘터리 영화 3편도 포함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스웨덴의 국민 작가이자 전 세계적으로 1억 5000만부의 판매고를 올린 동화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삶과 작품 세계를 다룬 다큐멘터리 ‘아스트리드’이다.

한국에서도 TV를 통해 방영돼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말괄량이 삐삐’, ‘에밀은 사고뭉치’로 잘 알려진 그녀는 평생 어린이들과 끊임없는 우정을 이어간 위대한 작가다.

청소년기의 방황과 우정을 다룬 작품들도 상영된다. 스웨덴에서 큰 인기를 끈 청소년 판타지 소설 3부작 ‘엘겔스포스’를 원작으로 한 ‘씨클’은 ‘마녀’라는 독특한 소재로 십대 소녀들의 환상적인 모험을 다루고 있다. 사운드 트랙 제작에 영화 제작자이기도 한 아버지의 멤버 베니 안데르손이 참여한 점도 눈길을 끈다. ‘우리가 최고



다큐 ‘아스트리드’의 한 장면. 원작자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말괄량이 삐삐’ 제작현장에서 주연배우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

야’는 1982년 스톡홀름을 배경으로 핑크 밴드를 결성하는 당돌한 열세 살 소녀들의 도전을 그리고 있으며 ‘소피 벨’은 단짝 친구 알리스를 찾아 낯선 베를린으로 위태로운 여행을 떠나는 소피의 성장통을 담았다.

또 ‘인더독’은 스웨덴을 떠나 노르웨이에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 계층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들고, 가족 드라마 ‘비스칸의 기적’은 계급 격차와 성격 차이에서 발생한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를 유쾌하게 그려낸다.

‘다큐멘터리는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는 독특한 주제의 다큐도 선보인다.

스웨덴 인구 5분의 1에 달하는 이민자 문제와 통합 이슈를 신선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 ‘나이스 피플’은 소말리아 내전을 피해 스웨덴으로 이주한 열대 지방 청년들이 동계 스포츠 ‘밴다’에 도전하는 감동 실화를 그린 작품이다.

또 환경 문제와 자동차 산업의 횡포를 고발하는 ‘자전거 vs 자동차’는 단순히 자전거 이용자와 자동차 운전자들 대결 구도로 그리는 대신 공유와 화합을 통해 조화를 이뤄 살아가는 세계를 제안한다.

주한 스웨덴 대사 등이 참여하는 개막식(6일 오후 2시)에서는 개막작 ‘씨클’이 상영되며 레반 아킨 감독과 사라 베리마르크 엘프그렌 시나리오 작가가 관객과의 대화(진행 이삼훈 프로그래머)를 갖는다. 또 오



‘씨클’



‘소피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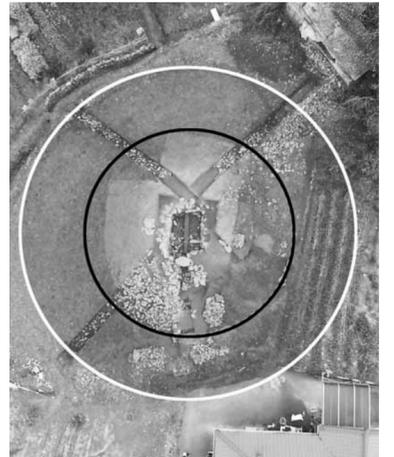
후 7시 ‘인더독’ 상영 후에는 유망청 프로 그래머의 사회로 주연배우 비앙카 크론펜프가 관객들을 만난다. 상영작 안내 및 시간표는 광주극장 카페

(cafe.naver.com/cinemagwangju/10678) 참조. 영화 티켓은 상영 하루 전부터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

화순 천덕리에 1500여 년 전 원형고분

층석시설 완벽하게 발굴...유물 토기·철기 등 100여점

화순군 능주면 천덕리에서 1500년 전 축조된 고분이 발견돼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30일 “화순 천덕리 회덕고분(기념물 제192호) 발굴조사 결과 1500여 년 전인 6세기 전후에 축조된 원형 고분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오늘(31일) 오후 ‘화순 천덕리 회덕고분’ 발굴조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화순 천덕리 회덕고분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지난 9월 20일부터 매장문화재 전문기관인 대한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했다. 이번 발굴은 고분의 구조, 연대, 성격 등을 규명하고, 정비·복원의 고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경비 1억원은 전라남도 화순군이 지원했다.

조사 결과 지름 22.17m, 높이 5.3m 규모의 이 회덕고분에서 분분 표면에 돌을 깬 층석(層石) 시설과 황철석시설(즉면 통로)을 통해 무덤방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확인됐다. 특히 원형 고분 가운데 유일하게 층석 시설이 완벽히 남아 주목된다.

석실 벽면과 나무관은 ‘연생불멸’을 상징하는 붉은질(漆) 장식을 했다. 무덤은 관 받침시설 등으로 보아 4명 이상이 50여 년의 시간을 두고 추가

안장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출토 유물은 기대(器臺, 그릇받침), 고배(高杯, 굽다리접시), 개배(盞杯, 무경접시) 등 토기류, 칼·도끼·화살 등 철기류, 금귀걸이, 구슬을 포함해 100여점에 이른다.

정삼동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6세기 전후 이 지역에 대규모 세력집단이 존재했고, 백제·대가야·일본과 활발하게 교류를 펼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단서를 찾았다”며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비·복원을 추진하고, 앞으로 관련 연구기관·학계 등과 연계해 전남 고대문화의 성격과 실체를 규명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피아노아카데미 제48회 정기연주회

내일 금호아트홀...프로코피에프 소나타 6·8·9번

광주피아노아카데미(회장 박행숙 목포대 교수) 제48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1월 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프로코피에프(1891~1953) 탄생 125주년을 기념해 진행하고 있는 소나타 전곡(9곡) 연주회 두번째 시리즈다. 이번 공연의 연주자는 김현정, 장지민, 서현일씨로 각각 프로코피에프의 소나타 6번과 8번, 9번을 연주한다. 지난 1990년 창립된 광주피아노아카데미는 지역 대학 교육 현장에서 활

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들의 모임으로 매년 2차례 정기 연주회(작곡가별 테마 연주 시리즈, 향토 작곡가 피아노 신작연주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 차례씩 신인연주회도 연다. 문의 010-7117-624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을밤 적시는 아름다운 노래 소리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일 호남신학대 예음홀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 13번째 정기연주회가 11월 1일 오후 7시30분 호남신학대 예음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테너 박채욱, 메조 소프라노 강양은, 바리톤 이은철, 베이스 임해철, 소프라노 구성희, 소프라노 김진남씨가 출연해 한국 가곡, 오페라 아리아 등을 들려준다. 공연 레퍼토리는 로드리고의 ‘포플러나 무를 보고 왔어요, 어머니’, 신기복 ‘내 고향’, 이흥렬 ‘코스모스를 노래함’, 나운영

곡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임금수 곡 ‘사랑하는 마음’,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소문은 바람을 타고’, 송은의 ‘청산은 깊어 좋아라’ 등이다. 피아노 듀오 곡으로 서영화·박지현씨가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등도 들려준다. 피아노 반주는 서영화, 한정숙, 박지현씨 등이 맡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찜살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정밀향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평균작업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